

개혁신학과 복음주의에 관한 계량서지학적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using Bibliometric Analysis Method on the Reformed Theology and Evangelicalism

유 영 준 (Yeong Jun Yoo)**

이 재 윤 (Jae Yun Lee)***

초 록

이 연구에서는 개혁신학과 복음주의, 중립적인 신학적 입장을 가지는 학술지와 색인어, 저자를 대상으로 계량서지학적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평균 연결 군집화, 이웃중심성 척도, 프로파일 코사인 유사도를 활용하여 세 가지 결과를 제시하였다. 특히 저자 간 관계를 분석할 때에는 저자 사이에 핵심 공유 색인어를 파악해서 연구 주제를 해석하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았다. 학술지 분석에서는 9개 학술지가 크게 개혁신학과 복음주의의 두 개 군집으로 나뉘어졌지만, 개혁신학을 지향하는 장로교단 학술지인 장신논단만 복음주의 군집에 속하였다. 두 군집의 색인어 분석에서도 개혁신학과 복음주의가 두 군집을 대표하는 주요어로 나타났다. 저자 분석에서는 9개의 군집이 산출되었다. 이 중에서 4개의 군집에는 주로 개혁신학을 연구하는 장로교단 신학자들이 포함되었으며, 5개 군집에는 장로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신학자들이 주로 포함되었다. 따라서 학술지와 색인어, 저자에 대한 계량서지학적 분석 모두에서 일관되게 개혁신학 군집과 복음주의 군집을 도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at analyzing journals and index terms, authors of the reformed theology and evangelicalism, neutral theological position by using bibliometrical analyzing methods. The analyzing methods are average linkage and neighbor centralities, profile cosine similarities. Especially, when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uthors, we interpreted the research topic by finding the key shared index terms between the authors. In the journal analysis results, 9 journals were largely clustered together in the two clusters of the reformed theology and evangelicalism, but Presbyterian Theological Quarterly that is thought to be a reformed journal was clustered in evangelical cluster. In the index terms analysis results of the clusters, the reformed theology and evangelicalism were key words representing the two clusters. In the authors' analysis results, we had 9 clusters and the Presbyterian theologian studying the reformed theology had the four clusters and the non-Presbyterian theologian had the 5 clusters. Therefore, we consistently had the two clusters of the reformed theology and evangelicalism in all the analysis of the journals and the index terms, the authors.

키워드: 개혁신학, 복음주의, 계량서지학, 프로파일 코사인 유사도, 이웃중심성, 병렬최근접이웃클러스터링
The Reformed Theology, Evangelicalism, Bibliometrics, Profile Cosine Similarity,
Neighbor Centrality, Parallel Nearest Neighbor Clustering

* 이 논문은 2018년 나사렛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연구하였음.

** 나사렛대학교 점자문헌정보학과 교수(youngjune@kornu.ac.kr) (제1저자)

***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memexlee@mju.ac.kr) (공동저자)

논문접수일자 : 2018년 8월 14일 논문심사일자 : 2018년 8월 31일 게재확정일자 : 2018년 9월 5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3): 41-63, 2018.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8.29.3.041]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1.1 연구의 목적

학술지 논문의 색인어를 계량서지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그 학술지의 지식구조를 밝힘으로써 그 학문영역의 연구경향이나 학자들의 학문적 입장을 제시하는 것은 그 학문영역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거나 미래의 방향을 예측하는 등 여러 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계량서지학적 분석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는 자연과학이나 공학 영역에서 흔하지만, 키워드 분석을 중심으로 점차 국내에서도 인문사회과학 영역에까지 계량서지학적 연구가 확산되고 있다(이수상 2013). 인문학 영역에도 작문(김혜연 2017), 한국어 교육(장경미 2017), 독서(김관준 2015), 작가분석(최상희 2017), 중국학(최은진 2016), 신학(유영준, 이재운 2016a) 등의 분야에서 계량서지학적 분석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신학 영역은 교회와 분리할 수 없으며, 기독교인의 삶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따라서 신학 영역의 분석 결과는 교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과 무관하게 교회를 이끌어 나갈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교파의 신학을 분석함으로써 세 요소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데에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회의 신학은 복음주의신학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교파와 상관없이 복음주의를 지향한다는 교회가 대다수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가장 큰 교단은 장로교단이다. 다시 말해서 신자 수가 가장 많은 교단이 장로교단

이라는 말이다. 한국장로교회는 4개의 주요 교단으로 나뉘고, 그 교단들은 모두 신학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 신학대학원들은 장로교단으로 장로교신학을 지향하고 있으며, 장로교신학은 개혁신학 또는 칼빈주의로도 불린다. 한국장로교역사와 관련해서 허순길(2001)에 의하면 한국의 초기 선교사들은 미국의 장로교회 소속이었지만, 대부분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이었다. 그리고 한국장로교회 목사들의 설교도 장로교회의 설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신자들도 장로교회에 속해 있었지만 장로교인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려웠으며, 다른 교파의 교회로 넘나들게 되었다. 허순길이 언급한 이러한 경향은 지금도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내용에 따르면 특정한 교파에 속하는 것이 그 교파의 신학적 입장을 지지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학자도 자신이 속한 교파의 신학을 따르는지 확신할 수 없다. 또한 교파의 신학 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그 교단의 신학교회와 신자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많은 신자가 속해 있는 한국장로교회의 학술지와 신학교 교수들과 개신교 대부분의 교파가 복음주의라고 주장하는 신학 학술지와 저자들을 분석하는 것은 한국 신학계뿐만 아니라 교회와 신자들에게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교회의 장로교단과 개혁신학 관련 학술지의 색인어와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학술지들의 색인어를 분석함으로써, 두 신학의 신학적 경향의 차이를 밝히고, 장로교단들이 개혁신학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살

해보려고 하였다. 더불어 신학자들의 주요 연구주제를 분석하여 그 신학자들이 개혁신학과 복음주의신학 중에서 어떤 신학적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지도 밝히려려고 하였다.

1.2 연구의 방법

연구 대상으로 <표 1>과 같이 복음주의신학회의 학술지 2종, 중립적인 학술지 2종, 개혁신학 관련 학술지 5종을 분석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총 9종의 학술지 중에서 연구재단 등재지가 6종이며, 장로교단 학술지 3종(신학정론, 신학지남, 고신신학)은 등재지가 아니지만 연구의 필요성 때문에 포함시켰다.

학술지 분석에서는 평균 연결 군집화(average linkage clustering) 기법, 색인어 분석에서는 가중 네트워크를 위한 지역 중심성 척도인 이웃 중심성(neighbor centrality: NC) 척도(이재운 2015)와 ward 군집화 기법, 저자 분석에서는 프로파일 코사인 유사도와 병렬최근접이웃클러스터링(parallel nearest neighbor clustering: PNNC) 알고리즘(이재운 2006b)을 이용한 패스파인더 네트워크 분석, 그리고 저자 간 공유

색인어 분석을 적용하였다. 이 중에서 저자 간 공유 색인어 분석 기법은 김수정과 이재운(2016)이 학문 분야 단위 분석에서 학문 분야 사이에 공통된 색인어를 분석한 방법을 응용하여 저자 간 관계 분석에 적용한 것이다.

1.3 연구 질문

첫째, 학술지들이 개혁신학과 복음주의의 두 개의 군집으로 분리되는가?

둘째, 첫 번째 분석 결과 생성된 두 군집의 색인어 분석에서는 개혁신학과 복음주의의 신학적 특색이 구분되는가?

셋째, 저자들의 주요 연구영역과 소속 신학교가 학술지 분석과 색인어 분석처럼 개혁신학과 복음주의의 신학적 경향을 나타내는가?

2. 선행연구

신학 학술지의 색인어를 계량서지학적 분석 방법으로 연구한 논문으로는 국내 학술지 9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논문이 처음인 것으로 보

<표 1> 학술지명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발행기관
성경과 신학(Bible and Theology: BT)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신약연구(Korean Evangelical New Testament Studies: KENTS)	한국복음주의신약신학회
한국조직신학논총(Korean Journal of Systematic Theology: KJST)	한국조직신학회
신약논단(Korean New Testament Studies: KNTS)	한국신약학회
한국개혁신학(Korea Reformed Theology: KRT)	한국개혁신학회
장신논단(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KPJT)	장신교단(장로교회)
신학정론(Journal of Reformed Theology: JRT)	합신교단(장로교회)
신학지남(Presbyterian Theology Quarterly: PTQ)	총신교단(장로교회)
고신신학(KOSIN Theological Journal)	고신교단(장로교회)

인다(Yoo et al. 2013). 이 연구에서는 국내의 다양한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9개 신학학술지를 분석하였다. 이후에는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 학술지(유영준, 이재운 2016b)와 칼빈 신학 학술지(유영준, 이재운 2016a)의 최초 간행분을 포함한 전체 학술지를 시계열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데이터의 시기를 구분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신학학술지의 저자와 주요 연구 분야를 제시한 최초의 논문이었다.

3. 복음주의와 개혁신학

3.1 복음주의

복음주의는 성경의 용어인 복음에서 유래되었다. 임경근(2017)은 중세말기에 구원의 개인적인 측면과 스스로 성경읽기를 강조한 로마교회의 작가들을 복음적 또는 복음주의자라는 뜻의 영어 단어인 'evangelical'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으며, 후에 복음주의(evangelism, evangelicalism)라고 불렀다. 그리고 현대 복음주의의 선구자로 일컬어지는 17-18세기 경건주의자들은 개인의 회심을 강조하는 연설을 했으며, 소그룹과 개인의 신앙생활을 강조하였다.

한상화(2000)는 복음주의 용어의 혼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복음주의의 용례 9가지를 소개하였다. 그만큼 복음주의의 개념이 무엇인지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개혁신학과 상반되는 의미로 사용하거나 전도를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이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Stone(1999)은 복음주의를 이데

올로지, 운동, 공동체 또는 복음과 관련된 사상 체계나 정신으로 보기도 한다. 그리고 McGrath(1999)는 복음주의에서는 복음을 신자 개인의 주관적인 확신이나 체험으로 보기도 한다. 따라서 복음주의의 의미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복음주의는 교파나 교리에 한정된 좁은 개념이 아니라 집합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임경근 2017). 루니아(1984)는 다음과 같이 복음주의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첫째는 성경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둘째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체험을 강조하며, 셋째, 성도를 전도와 선교 영역에 매진하도록 하는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따라서 복음주의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에서는 개혁신학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성경해석의 다양한 관점을 인정함으로써 개혁신학과 차이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신앙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제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강조하지 않음으로써 신앙의 교회적 차원을 경시하는 경향을 가질 수 있다. 신자가 전도와 선교에 매진하는 것이 비성경적인 것은 아니지만 신자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개혁신학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2 개혁신학

개혁신학은 종교개혁에 근거한 용어로서, 종교개혁가였던 칼빈의 신학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칼빈주의라고도 불린다. 임경근(2017)은 칼

빈의 관심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것은 인간인 '나'에게 초점을 두었던 루터와 구분된다. 이러한 차이가 개혁신학과 복음주의를 구분하는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리스도 안에 계신 구원자 하나님에 관한 지식(타락, 율법도 신구약성경, 중보자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성령, 믿음, 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외부적 수단(교회)을 중심으로 개혁신학의 주요 개념들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Warfield(1970)은 성경, 하나님, 창조, 인간, 타락, 은혜, 그리스도, 주님, 성령, 복음, 선행, 교회, 종말을 개혁신학의 핵심 가치로 제시하였는데 칼빈이 제시한 개혁신학의 특징과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개혁신학을 확립한 버코프는 자신의 저서인 조직신학(1996)에서 개혁신학의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하나님/신론(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인간론(원시 상태의 인간, 죄에 빠진 인간, 은혜언약 안에 있는 인간),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역/기독교론(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신분, 그리스도의 직분), 구원 사역의 적용/구원론, 교회와 은혜의 수단/교회론(교회와 은혜의 수단), 마지막 날의 일들/종말론(개인적 종말론과 일반적 종말론) 등 6가지인데, 칼빈과 위필드의 개혁신학 주요 개념과 유사하다. 가장 최근에는 임경근(2017)이 개혁신학의 특징을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경중심, 교회중심, 신앙과 삶의 일치, 기독교 세계관 등 7가지로 제시하였다. 임경근이 제시한 내용에서 신앙과 삶의 일치와 기독

교 세계관은 개혁신학의 주요 용어들을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한 개념들이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임경근은 개혁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개혁신앙을 사용하였는데, 그 신앙의 내용이 개혁신학에서 나온 것이므로 두 용어는 유사한 용어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개혁신학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경, 교회, 그리스도인의 삶 등의 주요 개념을 요약할 수 있으며, 복음주의와 다르게 16세기부터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주요 개념들이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개인의 구원과 신앙을 강조하는 복음주의와 다르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와 개혁신학의 신학적 내용을 교회로서 개인의 삶에 적용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

4. 계량서지학적 분석

4.1 기본 통계

신학학술지의 색인어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복음주의신학회의 학술지 2종, 중립적인 학술지 2종, 개혁신학 관련 학술지 5종에 실린 학술논문에서 수집하였다. 이 중에서 연구재단 등재지 6종이 포함되었으며, 개혁신학 관련 학술지 중에서 장로교단 학술지 3종은 등재지가 아니지만 연구의 필요성 때문에 포함시켰다.

총 6,760종의 색인어가 14,743회 출현하였다. 동일한 용어가 두 가지 이상으로 다르게 표기된 경우에는 빈도가 높거나 외래어표기법에 맞는 대표 형태로 통일하였다.

〈표 2〉 연도별 논문 수

학술지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합계
BT	14	22	24	34	31	33	48	48	41	44	339
JRT	17	18	15	15	16	20	25	15	23	21	185
KENTS	5	19	23	22	24	31	29	33	25	21	232
KJST	17	16	25	25	27	38	34	32	27	26	267
KNTS	31	31	32	32	29	34	38	33	34	30	324
KOSIN	6	8	9	12	9	8	11	11	10	10	94
KPJT	29	32	13	31	43	62	57	41	48	47	403
KRT	21	21	18	21	24	41	35	38	26	30	275
PTQ	48	40	46	35	31	36	34	47	38	32	387
총합계	188	207	205	227	234	303	311	298	272	261	2,506

〈표 3〉 연도별 색인어 수

학술지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합계
BT	92	149	166	251	228	195	317	343	293	287	2,321
JRT	87	93	96	89	74	97	134	84	115	118	987
KENTS	25	98	131	133	147	169	161	202	155	113	1,334
KJST	72	65	125	151	175	239	185	182	164	156	1,514
KNTS	178	172	187	198	173	219	230	212	204	192	1,965
KOSIN	36	47	68	89	52	54	67	71	64	56	604
KPJT	158	167	70	184	239	337	304	233	276	260	2,228
KRT	122	136	119	149	165	272	239	244	172	176	1,794
PTQ	243	213	245	186	153	174	161	249	211	205	2,040
총합계	1,013	1,140	1,207	1,430	1,406	1,756	1,798	1,820	1,654	1,563	14,787

4.2 학술지 분석 결과

9개 학술지에서 6,760종의 색인어가 사용된 횟수를 9 X 6,760 크기의 행렬로 표현한 다음 학술지 사이의 색인어 유사도를 코사인 계수로 산출하여 〈표 4〉와 같은 코사인 유사도 행렬을 얻었다.

코사인 유사도를 입력 데이터로 하여 평균연결 군집화를 수행한 결과 〈그림 1〉과 같이 계층적 군집화가 이루어졌고, 4개 군집 분할을 선택하였다. KOSIN 학술지가 별도의 군집으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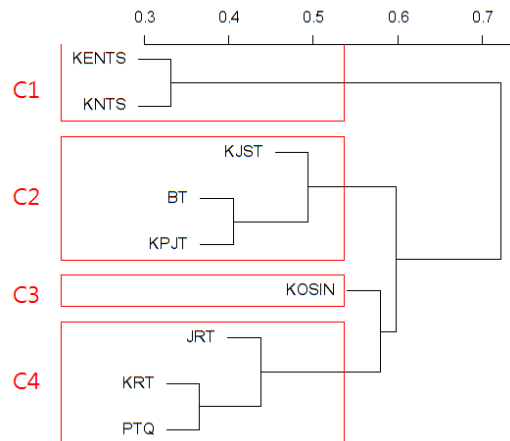
타난 이유는 기본통계에서 밝혀진 것처럼 논문과 색인어 수가 다른 학술지에 비해서 매우 적어서 개별 군집이 된 것으로 보인다.

평균연결 군집화 기법을 바탕으로 9종 학술지의 군집 기반 네트워크 CBNet을 〈그림 2〉와 같이 생성하였다. 이 그림에는 학술지별 주요어를 표시하였다. 주요어는 각 학술지에 출현한 색인어 중에서 출현빈도가 상위 5위 이내인 색인어이다. 〈그림 3〉은 4개 군집의 주요어를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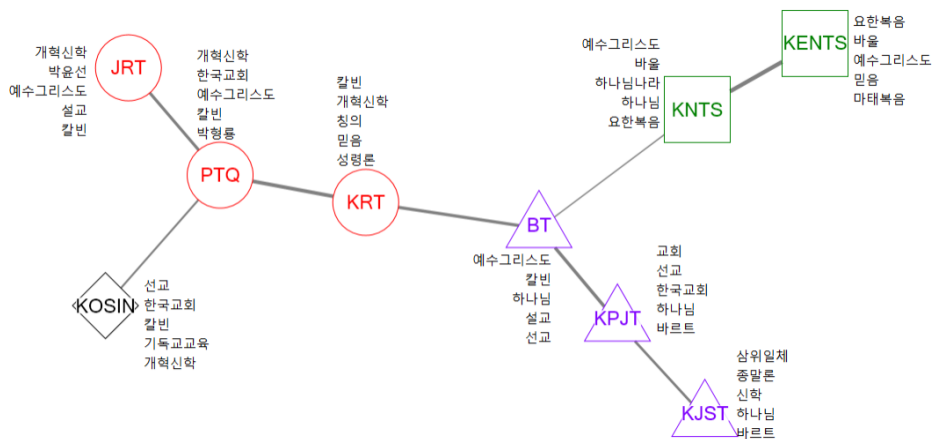
군집 3, 4의 주요 공통어를 보면 4개 학술지

<표 4> 9종 학술지 간 코사인 유사도 행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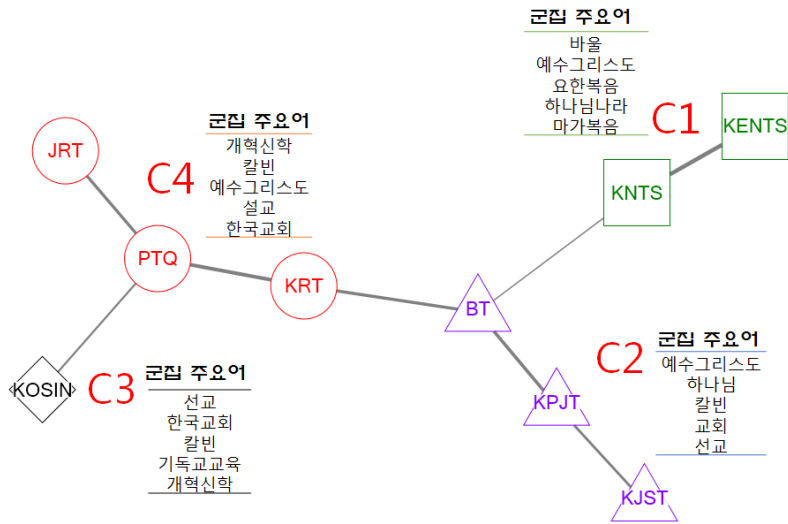
	BT	JRT	KENTS	KJST	KNTS	KOSIN	KPJT	KRT	PTQ
BT	1.000	0.444	0.366	0.472	0.442	0.519	0.594	0.592	0.532
JRT	0.444	1.000	0.276	0.292	0.294	0.351	0.315	0.545	0.578
KENTS	0.366	0.276	1.000	0.240	0.668	0.223	0.279	0.279	0.237
KJST	0.472	0.292	0.240	1.000	0.310	0.322	0.539	0.494	0.358
KNTS	0.442	0.294	0.668	0.310	1.000	0.188	0.342	0.283	0.268
KOSIN	0.519	0.351	0.223	0.322	0.188	1.000	0.461	0.477	0.504
KPJT	0.594	0.315	0.279	0.539	0.342	0.461	1.000	0.451	0.396
KRT	0.592	0.545	0.279	0.494	0.283	0.477	0.451	1.000	0.635
PTQ	0.532	0.578	0.237	0.358	0.268	0.504	0.396	0.635	1.000



<그림 1> 코사인 유사도 데이터를 활용한 평균연결 군집화에 의한 계층적 군집화



<그림 2> 9종 학술지의 평균연결 군집 기반 네트워크(CBNet)와 학술지별 주요어



〈그림 3〉 평균연결 군집 기반 네트워크(CBNet)의 4개 학술지 군집별 주요어

모두 ‘개혁신학’과 ‘칼빈’을 포함하고 있다. ‘칼빈’은 개혁신학을 완성한 신학자이므로 군집 3, 4는 개혁신학 군집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군집에 포함된 3 종의 장로교 학술지인 신학지남(PTQ), 신학정론(JRT), 고신신학(KOSIN)은 개혁신학을 지향하는 학술지들이다. 그리고 한국개혁신학은 학술지 이름에서 그 지향하는 신학적 특색을 쉽게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장신논단(KPJT)은 장로교단 학술지이지만 개혁신학을 지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다른 장로교단 학술지와 차별성을 보였다.

1군집은 신약학 관련 학술지로서 ‘예수 그리스도’, ‘바울’, ‘요한복음’을 주요 공통어로 가진다. 군집 2에서는 ‘하나님’이 세 학술지 모두에서 공통 주요어이며, ‘선교’와 ‘바르트’는 두 학술지에서 공통 주요어로 나타났다. 선교는 복음주의 진영에서 강조하며, 바르트는 개혁신학과는 다른 신학적 경향을 보이는 신학자이다. 특히 KPJT와 KJST가 ‘바르트’를 공통 주요어

로 가짐으로써 ‘개혁신학’과 ‘칼빈’을 주요 공통어로 가지는 군집 3, 4의 개혁신학과는 다른 신학적 경향을 보였다.

4개 군집마다 각 군집에 속한 학술지에 공통적으로 많이 출현한 색인어를 군집별 주요어로 정했다. 먼저 색인어의 학술지별 출현비율(해당 색인어 빈도 / 색인어 전체빈도)을 구한 후, 군집에 속한 각 학술지마다의 출현비율의 기하평균이 높은 색인어를 군집별 주요어로 지정했다. 산술평균이 아닌 기하평균을 구한 이유는, 군집 소속 학술지 중 어느 하나에서라도 출현비율이 0인 색인어는 군집을 대표하는 주요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음 그림에는 군집별로 주요어 5개씩을 표시하였다.

군집 3, 4는 학술지별 주요어와 유사하게 ‘개혁신학’과 ‘칼빈’이 포함되었으며, 두 군집 모두에서 ‘한국교회’도 주요어로 나타났다. 군집 1, 2의 공통 주요어는 ‘예수 그리스도’이었으며, 군집 1은 신약학 학술지의 특성을 보여주었으며,

군집 2의 '교회'는 군집 3, 4의 '한국교회' 보다는 포괄적인 용어가 주요어로 포함되었다.

4.3 색인어 분석 결과

앞 장의 학술지 분석 결과 네트워크에서 '개혁신학'을 주요어 중 하나로 포함하는 왼쪽의 학술지 4종(JRT, KRT, PTQ, KOSIN)을 A 집단, 그렇지 않은 나머지 오른쪽의 5종 학술지를 B집단으로 구분하였다. A 집단에 속한 학술지들은 개혁신학을 지향하는 장로교단 학술지 3종과 한국개혁신학이 포함되어 개혁신학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B 집단에 속한 5종의 학술지 중에는 복음주의신학 관련 학회에서 발행한 2종과 개혁신학이나 복음주의에 속하지 않는 중립적인 학술지 2종과 장로교단 학술지이지만 학술지 군집 분석에서 다른 장로교단 학술지와 분리된 1종의 장로교단 학술지가 포함되었다. 학술지 군집 분석을 근거로 B 집단은 복음주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집단에 속한 학술지의 게재 논문에 나타난 색인어 사이의 동시출현 관계를 이용하여 주요 연구주제를 분석해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군집 주요어는 색인어의 출현 빈도를 기준으로 선정한 것인데, 고빈도 주제는 해당 논문집합에 나타난 연구 주제 전반을 고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특정 연구 분야로 편중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색인어 동시출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색인어의 입지에 대한 지역 중심성 척도를 측정하였다. 저자동시인용 네트워크에서 국지적인 관점의 지역 중심성 척도가 각 주제별로 핵심저자를 고르게 파악하고자 할 때 유용하다

고 밝혀져 있기 때문이다(이재운 2006a), 이 연구에서는 가중 네트워크를 위한 지역 중심성 척도인 이웃중심성 척도(이재운 2015)를 적용하였다.

A집단에 속한 4종의 학술지의 논문은 총 941건이었고, 여기에 출현한 색인어는 총 2,846종, 2번 이상 출현한 색인어는 681종이었다. A 집단의 941건의 논문 중 1% 이상에서 출현한 색인어, 즉 10회 이상 출현한 색인어 62종을 동시출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B집단에 속한 5종 학술지의 논문은 총 1,565건이었고, 여기에 출현한 색인어는 총 4,745종, 2번 이상 출현한 색인어는 1,119종이었다. B집단의 1,565건의 논문 중 1% 이상에서 출현한 색인어, 즉 16회 이상 출현한 색인어는 54종이었다. B집단의 논문 수가 군집 A보다 많기 때문에 색인어의 수가 군집 A의 62종보다 많아지도록 출현빈도 기준을 16보다 낮춘 결과, 14회 이상 출현한 색인어 65종을 동시출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A 집단에서는 '개혁신학'이 전체의 13.07%인 123건의 논문에 출현해서 가장 비중이 높았고 '갈빈'이 8.29%(78건), '한국교회'가 6.80%(64건)으로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B집단에서는 '예수그리스도'가 전체의 7.60%인 119건의 논문에 출현해서 가장 비중이 높았고, '바울'이 5.62%(88건), '하나님'이 4.60%(7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분석에 포함된 주요 색인어는 <표 5>와 같다.

집단 A의 출현빈도 상위 색인어 62개(열)와 2회 이상 출현한 색인어(행) 681개간의 동시출현을 파악하여 681행×62열 행렬을 도출한 후, 62개의 상위 색인어가 681종의 색인어들과 각

〈표 5〉 2개 집단별 출현빈도 상위 색인어

A집단의 출현빈도 상위 색인어 62종				B집단의 출현빈도 상위 색인어 65종			
개혁신학	123	예배	13	예수그리스도	119	윤리	24
칼빈	78	교육	13	바울	88	마태복음	24
한국교회	64	부흥	13	하나님	72	유대교	23
예수그리스도	56	평양대부흥운동	13	하나님나라	60	누가복음	22
설교	50	잠언	13	믿음	57	복음주의	21
선교	34	기독교론	12	교회	55	루터	20
칭의	34	영성	12	선교	54	예배	19
교회	31	해석학	12	칼빈	51	성찬	19
박형룡	30	로마서	12	요한복음	50	제자도	19
성령	27	구원	12	종말론	48	공동체	18
삼위일체	27	복음주의	12	성령	47	갈라디아서	18
성경	27	웨슬리	12	삼위일체	44	비유	18
믿음	26	예정	12	기독교론	43	말씀	17
신학	24	칭교도	12	한국교회	41	종교	17
한국장로교회	23	종말론	11	설교	41	개혁신학	16
박윤선	23	요한계시록	11	율법	35	성화	16
성령론	20	정체성	11	마가복음	34	기도	16
교회론	18	성찬	11	칭의	33	어거스틴	16
개혁교회	17	구속사	11	신학	33	몰트만	16
구약성경	17	WCC	11	영성	31	생명	16
신약성경	16	목회자	11	해석학	31	정의	16
성경관	16	기도	10	바르트	30	인간	15
하나님	15	어거스틴	10	복음	30	문화	15
기독교교육	15	은혜	10	성경	29	죽음	15
구원론	15	기독교인	10	로마서	28	내러티브	14
목회상담	15	섭리	10	기독교교육	27	성경해석	14
종교개혁	15	목회	10	요한계시록	27	구조	14
주해	15	바빙크	10	계시	27	창조	14
바울	14	중보자	10	기독교	26	고린도전서	14
성화	14			정체성	25	평화	14
언약	14			사랑	25	기독교상담	14
충신	14			구원	24	수사학	14
기독교	13			사도행전	24		

각 동시출현한 681개의 빈도를 프로파일 벡터로 간주하여 62개 색인어 사이의 프로파일 코사인 유사도를 산출하였다. 즉 62개 색인어 사이의 동시출현빈도를 관계 값으로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각 색인어가 다른 색인어와 동시출현하는 패턴이 유사한 정도를 산출하여 색인어 사이의 관계도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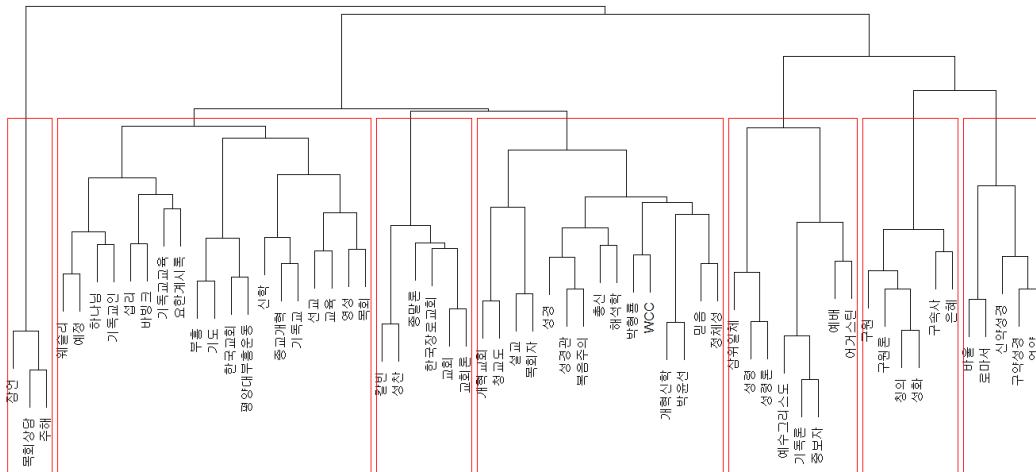
는 상위 색인어 사이의 직접 동시출현빈도는 0인 경우가 많아서 관계가 풍부하지 못하고 너무 성긴 네트워크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시출현 프로파일의 유사한 정도로 코사인 유사도를 산출하여 색인어 사이의 정밀한 관계를 도출하였다.

집단 A에서 출현빈도 상위 색인어 62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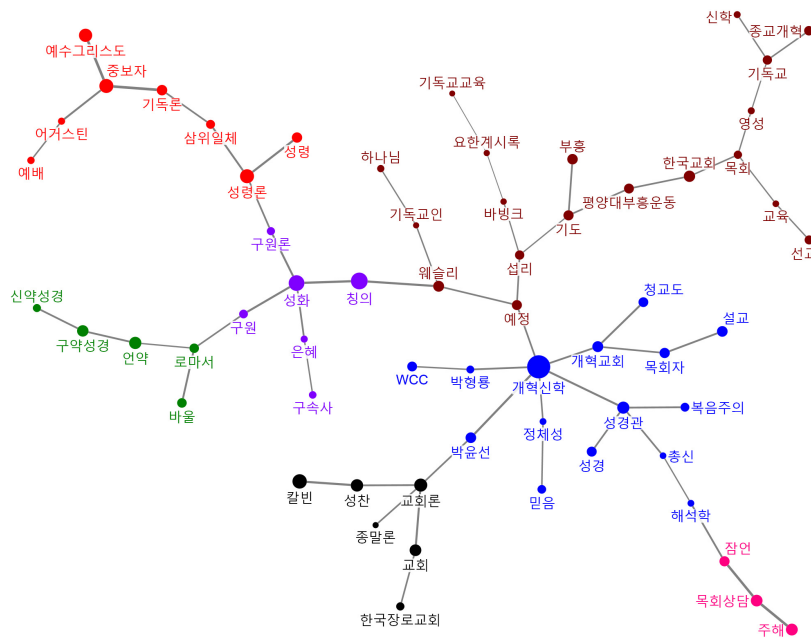
프로파일 코사인 유사도를 입력 데이터로 하여 계층적 군집화 기법의 일종인 Ward 기법으로 군집화를 수행한 결과는 <그림 4>의 덴드로그

램과 같다.

이 군집화 결과로부터 군집기반 네트워크 CBNet을 <그림 5>와 같이 도출하였다.



<그림 4> 집단 A의 출현빈도 상위어 62종의 Ward 군집화 결과(7개 군집 표시)



<그림 5> 집단 A의 출현빈도 상위어 62종의 군집기반 네트워크 CBNet (노드의 크기는 이웃중심성에 비례)

가중네트워크에서의 지역 중심성 척도인 이웃중심성 척도로 62종 색인어의 중요도를 측정 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이 표에서 보듯이 집단 A에서는 ‘개혁신학’이 2위와 현격한 차이로 1위로 나타났으며 ‘칭의’, ‘성화’, ‘칼빈’, ‘증보자’가 5위 이내에 포함되었다. 집단 A에 포함된 주요 색인어들은 개혁신학과 관련된 용어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집단 A는 개혁신학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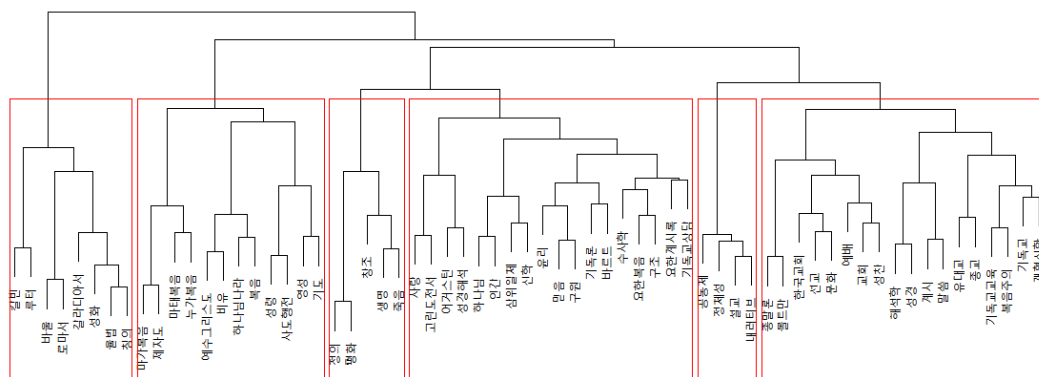
단으로 보인다.

집단 B에서 출현빈도 상위 색인어 65종의 프로파일 코사인 유사도를 입력 데이터로 하여 계층적 군집화 기법의 일종인 Ward 기법으로 군집화를 수행한 결과는 <그림 6>의 덴드로그램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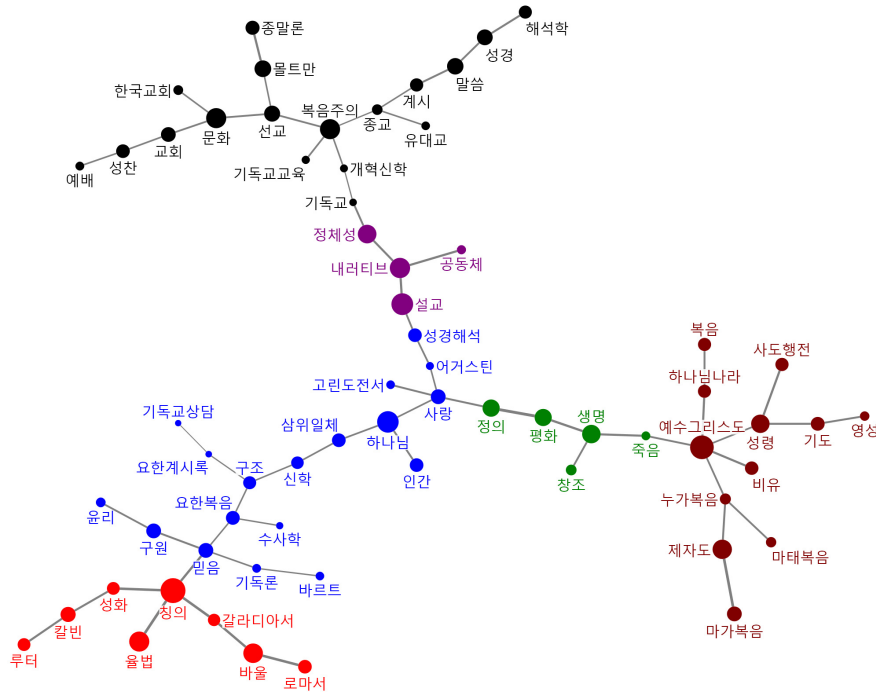
이 군집화 결과로부터 군집기반 네트워크 CBNet을 <그림 7>과 같이 도출하였다.

<표 6> 집단 A의 출현빈도 상위어 62종의 이웃중심성 측정 결과

색인어	NC	색인어	NC	색인어	NC	색인어	NC
개혁신학	10.64	개혁교회	1.87	종교개혁	1.28	하나님	0.50
칭의	5.28	웨슬리	1.87	로마서	1.27	은혜	0.46
성화	4.55	설교	1.77	기독교	1.19	어거스틴	0.45
칼빈	3.73	박윤선	1.74	섭리	1.19	영성	0.43
증보자	3.52	기독론	1.69	선교	1.10	신학	0.40
성령론	3.50	부흥	1.68	삼위일체	1.08	정체성	0.38
예수그리스도	3.06	성령	1.62	복음주의	1.04	해석학	0.37
교회론	2.96	목회자	1.58	구원	0.99	교육	0.32
성찬	2.61	잠언	1.55	믿음	0.96	총신	0.31
언약	2.53	기도	1.53	한국장로교회	0.82	바빙크	0.25
성경관	2.47	예정	1.48	목회	0.82	요한계시록	0.21
주해	2.32	성경	1.46	구원론	0.78	기독교인	0.18
교회	2.26	평양대부흥운동	1.44	신약성경	0.76	종말론	0.17
목회상담	2.26	WCC	1.40	박형룡	0.68	기독교교육	0.12
구약성경	2.14	청교도	1.39	구속사	0.59		
한국교회	2.07	바울	1.30	예배	0.52		



<그림 6> 집단 B의 출현빈도 상위어 65개의 Ward 군집화 결과(6개 군집 표시)



〈그림 7〉 집단 B의 출현빈도 상위어 65개의 군집기반 네트워크 CBNet (노드의 크기는 이웃중심성에 비례)

가중네트워크에서의 지역 중심성 척도인 이웃중심성 척도로 65개 색인어의 중요도를 측정 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이 표에서 보듯이 집단 B에서는 ‘칭의’가 1위로 나타났으며, 근소한 차이로 ‘예수그리스도’가 2위였고 ‘설교’, ‘하나님’, ‘내러티브’가 5위 이내에 포함되었다.

두 집단 모두에서 ‘칭의’는 5점대의 이웃중심성을 보여서 최상위권의 색인어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최근 한국신학계에서 칭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집단 B에서 2위인 ‘예수 그리스도’도 집단 A에서 7위로 상위권에 포함되었다. 즉 ‘칭의’와 ‘예수그리스도’는 두 집단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중심 색인어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두 집단에서의 입지가 크게 엇갈리는 주

요 색인어도 눈에 띈다. 집단 A에서 2위와 현격한 격차를 보이며 이웃중심성 1위였던 ‘개혁신학’은 집단 B에서는 최하위권인 61위에 불과했고, 집단 A에서 3위였던 ‘성화’는 집단 B에서는 42위에 머물렀다. 반면에 집단 B에서 4위인 ‘하나님’은 집단 A에서는 49위에 불과했고, 집단 B에서 8위로 나타난 ‘복음주의’는 집단 A에서는 39위에 머물렀으며, 집단 B에서 이웃중심성 5위인 ‘내러티브’는 집단 A에서는 출현빈도 상위 색인어에 포함되지도 못했다. 즉, ‘개혁신학’과 ‘성화’가 상대적으로 집단 A에서 두드러진 입지를 차지한 색인어인 반면, ‘하나님’, ‘복음주의’, ‘내러티브’는 상대적으로 집단 B에서 두드러진 입지를 차지한 색인어라고 할 수 있다. 집단 B의 신학적 경향이 복음주의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 7〉 집단 B의 출현빈도 상위어 65종의 이웃중심성 측정 결과

색인어	NC	색인어	NC	색인어	NC	색인어	NC
칭의	5.52	선교	2.08	계시	1.32	공동체	0.45
예수그리스도	4.96	성경	2.02	사도행전	1.31	죽음	0.42
설교	4.13	칼빈	1.83	복음	1.29	예배	0.40
하나님	4.04	사랑	1.74	해석학	1.28	기독론	0.40
내러티브	3.55	믿음	1.73	하나님나라	1.28	고린도전서	0.37
문화	3.48	마가복음	1.73	구조	1.26	유대교	0.37
율법	3.47	구원	1.72	루터	1.22	바르트	0.36
복음주의	3.47	교회	1.72	성화	1.21	기독교교육	0.30
바울	3.28	종말론	1.53	신학	1.15	어거스틴	0.27
제자도	3.21	요한복음	1.47	갈라디아서	1.11	개혁신학	0.26
정체성	2.95	기도	1.47	누가복음	0.82	기독교	0.21
생명	2.89	삼위일체	1.44	창조	0.75	수사학	0.17
성령	2.87	성찬	1.43	종교	0.73	요한계시록	0.08
정의	2.47	인간	1.42	마태복음	0.68	기독교상담	0.05
평화	2.44	성경해석	1.41	한국교회	0.56		
몰트만	2.31	로마서	1.41	윤리	0.55		
말씀	2.23	비유	1.37	영성	0.52		

따라서 학술지 군집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게, 집단 A는 개혁신학의 신학적 특색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혁신학'뿐만 아니라 '성화'는 구원 이후에 신자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강조하는 개혁신학과 관련이 깊다. 집단 B의 주요 색인어 중에서 '하나님'과 '내러티브'는 집단 내에서 이웃중심성 순위는 높지만, 네트워크의 하위 군집의 중심에 위치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정한 신학 경향과는 상관없는 중립적인 용어이며, '내러티브'는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보는 관점이어서 신학적 특색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에 '복음주의'는 이웃중심성 순위도 높으며, '칭의'와 '예수그리스도'와 유사하게 네트워크의 하위 군집의 중심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복음주의가 집단 B에서 신학적 특색을 나타내는 용어로 볼 수 있으며, 집단 B의 신학적 경향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4.4 저자 분석 결과

9종 학술지에 10년 간 10건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저자 47명을 주요 저자로 선정하였다. 주요 저자의 전공과 소속, 그리고 학술지별 게재 논문 수는 〈표 8〉과 같다.

〈표 8〉에 선정된 47명 저자를 전공별로 살펴보면 신약신학 17명, 조직신학 13명, 역사신학 4명, 실천신학 4명, 구약신학 3명, 선교신학 2명, 설교학 2명, 기독교윤리학 1명, 기독교교육학 1명이며, 소속신학교별은 총신 16명, 합신 7명, 고신 6명, 장신 3명, 백석 3명, KC 2명, 숭실대 2명, 안양대 1명, 한일 장신 1명, 웨신 1명, 협성대 1명, 나사렛 1명, 영남신 1명, 서울신 1명, 강남대 1명으로 나타났다. 전공별로 신약신학 전공 연구자가 가장 많은 것은 신약신학 관련 학술지가 2종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소속신학교별에서 총신과 합신, 고신 등 장로

〈표 8〉 주요 연구자의 전공 및 소속과 학술지별 게재 논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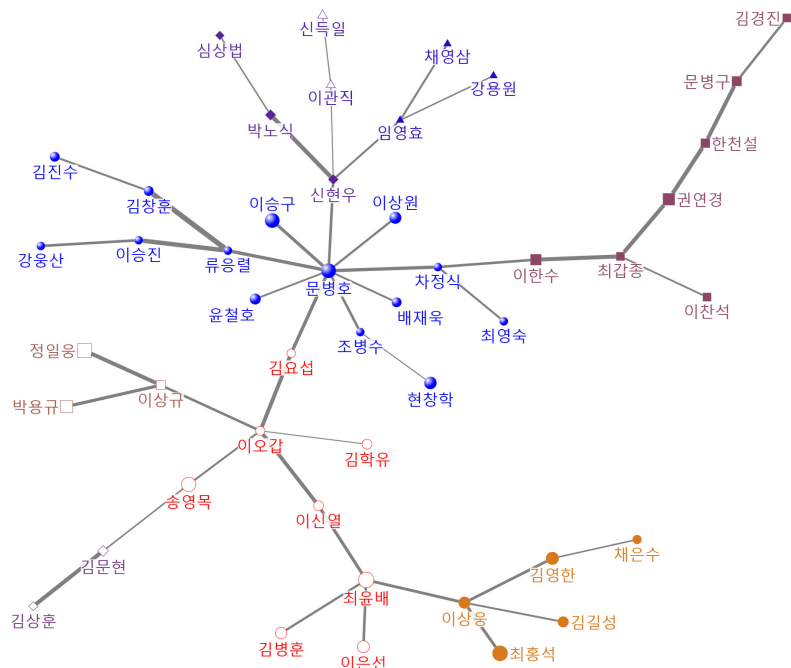
	연구자	전공	소속	집단 A					집단 B				합계
				BT	KPJT	KJST	KENTS	KNTS	KRT	PTQ	JRT	KOSIN	
1	최윤배	조직신학	장신	2	6	6			10				24
2	최홍석	조직신학	총신							24			24
3	이승구	조직신학	합신	2					6	1	13		22
4	문병호	조직신학	총신	3						18	1		22
5	송영목	신약신학	고신				10	1	2			8	21
6	정일웅	실천신학	총신	1					5	14			20
7	김영한	조직신학	승실	2					14	2			18
8	현장학	구약신학	합신								17		17
9	이상용	조직신학	총신						2	14			16
10	이은선	역사신학	안양대	6	1				9				16
11	박용규	역사신학	총신	1						15			16
12	이상원	기독교윤리	총신	2						14			16
13	권연경	신약신학	승실				9	6	1				16
14	김병훈	조직신학	합신	1					1		13		15
15	이현수	신약신학	총신				4		2	8			14
16	윤철호	조직신학	장신		8	6							14
17	김길성	조직신학	장신							14			14
18	김문현	신약신학	KC				10	4					14
19	박노식	신약신학	강남				5	9					14
20	신현우	신약신학	총신	1			4	4		4			13
21	신득일	구약신학	고신	2								10	12
22	이신열	조직신학	고신	2					2			8	12
23	배재욱	신약신학	영남		2		4	5	1				12
24	김창훈	실천신학	총신	4						8			12
25	김진수	구약신학	합신	2					1		9		12
26	김학유	선교신학	합신								12		12
27	문병구	신약신학	서울신	1			7	4					12
28	한천설	신약신학	총신	6						5			11
29	채은수	선교신학	총신							11			11
30	이상규	역사신학	고신						1		1	9	11
31	이오갑	조직신학	KC	1	1	9							11
32	심상범	신약신학	총신	2			4			5			11
33	이관직	실천신학	총신							11			11
34	김상훈	신약신학	총신				6	1		4			11
35	이찬석	조직신학	협성		1	8			1				10
36	최갑중	신약신학	백석	2			3	4	1				10
37	최영숙	신약신학	웨신	1			6	3					10
38	임영효	실천신학	고신									10	10
39	차정식	신약신학	한일장신		1			9					10
40	채영삼	신약신학	백석	1			6	3					10
41	조병수	신약신학	합신								10		10
42	이승진	설교학	합신	4					1		5		10
43	류응렬	설교학	나사렛						4	6			10
44	강용원	기독교교육	고신	4								6	10
45	김경진	신약신학	백석	3	2		2	3					10
46	강웅산	조직신학	총신	4						6			10
47	김요섭	역사신학	총신	4					3	3			10

교단 신학교에 소속된 연구자가 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장신은 장로교단 신학교이지만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상위 5명이 모두 장로교단 신학교 소속이었으며, 5명 중에 4명이 조직신학 전공자이었다.

저자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각 저자의 논문에 부여된 색인어를 비교하였다. 주요 저자 47명의 논문에 1번이라도 사용된 색인어는 1,997종이었다. 저자 47 × 색인어 1,997종의 행렬을 작성한 후, 각 저자 사이의 유사도를 코사인 계수로 산출하였다. 다음 과정에서는 47명의 주요 저자들 사이의 코사인 유사도 행렬을 입력 데이터로 하여 가중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인 WNet(이재운 2013)을 사용해서 패

스파인더 네트워크를 생성하였다. 또한 WNet을 사용해서 PNNC 군집화를 수행한 결과 <그림 8> 및 <표 9>와 같이 9개 군집이 자동으로도출되었다.

주요 저자 47명의 패스파인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핵심 연결선은 모두 46개이다. 두 저자 사이에 연결선이 생성되어 있다는 것은, 두 저자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색인어가 다수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두 저자가 공통적으로 사용한 색인어를 '공유 색인어'라고 할 수 있다. 공유 색인어에 대해서 두 저자가 각각 사용한 횟수를 곱한 값을 '색인어 공유도'라고 명명하고, 두 저자 사이의 색인어 공유도가 10 이상인 색인어는 모두 핵심 공유 색인어로 선정하였다. 색인어 공유도가 10 이상인 색인어가 없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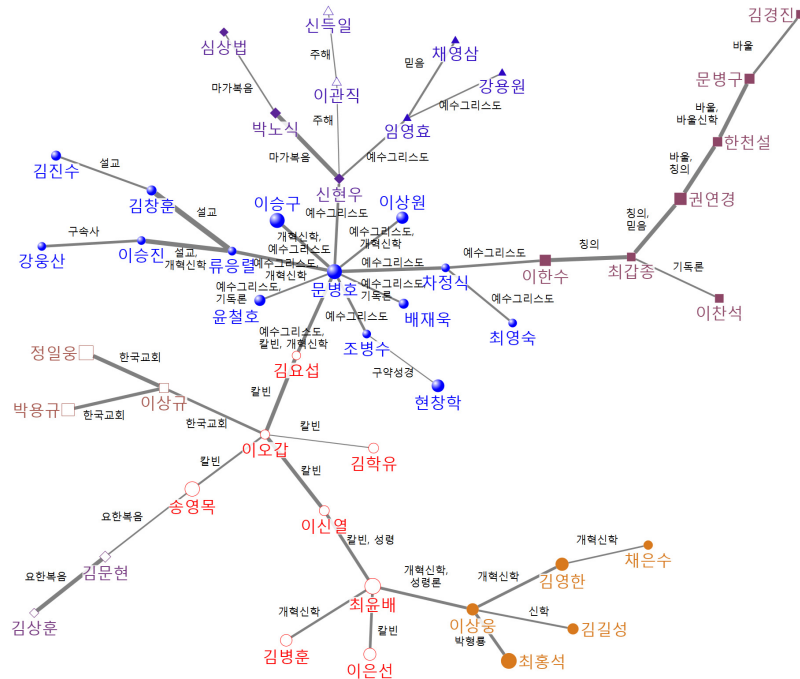
<그림 8> 주요 저자 47명의 패스파인더 네트워크 (PNNC 알고리즘에 의한 9개 군집별로 표식 구분)

<표 9> PNNC 군집화 결과로 도출된 9개 저자 군집

군집번호	소속 연구자
1	최윤배, 송영목, 이은선, 김병훈, 이신열, 김학유, 이오갑, 김요섭
2	최홍석, 김영한, 이상웅, 김길성, 채은수
3	이승구, 문병호, 현창학, 이상원, 윤철호, 배재욱, 김창훈, 김진수, 최영숙, 차정식, 조병수, 이승진, 류응렬, 강용산
4	정일웅, 박용규, 이상규
5	권연경, 이한수, 문병구, 한천설, 이찬석, 최갑종, 김경진
6	김문현, 김상훈
7	박노식, 신현우, 심상범
8	신득일, 이관직
9	임영효, 채영삼, 강용원

가장 공유도가 높은 1개의 색인어를 핵심 공유 색인어로 선정하였다. 패스파인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46개의 연결선마다 이렇게 선정된 핵심 공유 색인어는 <그림 9>에 제시하였다.

위쪽 네트워크의 중심 간선(위쪽 중앙의 군집3-a에서 문병호부터 아래쪽으로 김요섭, 이오갑, 이신열, 최윤배, 이상웅으로 이어지는 경로)에 개혁신학자들이 있고, 복음주의 저자들



<그림 9> 주요 저자 47명의 패스파인더 네트워크에 저자 간 핵심 공유 색인어를 표시한 결과

은 문병호의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군집 3-b (설교), 8(주해), 9(예수그리스도, 믿음), 5(바울), 7(요한복음)과 같이 주변부로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개혁신학자들이 상대적으로 연구 주제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반면에 복음주의 저자들은 공통 주제가 희박하여 분산된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쪽 군집은 복음주의 주제어와 연결되어 있다.

아래쪽에는 이오갑을 중심으로 '칼빈'을 공유하는 저자들(군집1 일부)이 포진하며, 이오갑의 왼쪽으로는 '한국교회'를 공유하는 저자들(군집4), 왼쪽 아래로는 '요한복음'을 공유하는 저자들(군집6)이 자리 잡았다. 오른쪽 아래의 최윤배를 중심으로 '칼빈'과 '개혁신학', '성령'을 공유하는 저자들(군집1 일부)이 있으며, 그 오른쪽으로는 '개혁신학', '박형룡', '신학'을 공유하는 저자들(군집2)이 이어진다. 따라서 아래쪽 군집은 개혁신학 주제어와 연결되어 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문병호를 중심으로 하는 군집 3-a의 일부가 '개혁신학'과 '예수그리스도'를 핵심 색인어로 공유한다는 점이다. 신학적

으로는 개혁신학자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는 이 저자 군집이 복음주의 군집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복음주의 저자들이 모여 있는 반면 개혁신학관련 저자들은 주로 아랫부분에 있지만 동시에 개혁신학과 복음주의 군집을 연결하는 군집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의 핵심 공유 색인어 결과를 바탕으로 〈표 9〉의 저자군집을 재구성하면 〈표 10〉과 같으며, 세부 그룹은 군집번호에 -a와 -b를 부기하고 괄호로 묶어서 표시하였다. 앞선 〈표 8〉의 전공과 소속 신학교별 데이터와 〈표 10〉을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부 그룹이 만들어진 군집은 1, 3 군집이며, 1군집 소속 저자 사이에는 전체적으로 칼빈을 공유하고 있지만 핵심 색인어로 개혁신학을 공유하는 세부그룹(1-a)과 그렇지 않은 세부그룹(1-b)으로 나뉜다. 3군집은 예수 그리스도와 개혁신학이 핵심 공유 색인어인 세부그룹(3-a)과 설교가 핵심 공유 색인어인 세부그룹(3-b)으로 나뉜다.

〈표 10〉 PNNC 군집화 결과로 도출된 9개 저자 군집의 핵심 공유 색인어와 연구자 그룹

군집번호	공유색인어	소속 연구자 세부 그룹
1	(개혁신학, 성령) (칼빈)	1-a (최윤배, 김병훈, 이은선, 이신열) 1-b (이오갑, 송영목, 김학유, 김요섭)
2	개혁신학, 박형룡, 신학	최홍석, 김영한, 이상웅, 김길성, 채은수
3	(예수그리스도, 개혁신학) (설교)	3-a (이승구, 문병호, 현창학, 이상원, 윤철호, 배재욱, 최영숙, 차정식, 조병수) 3-b (류응렬, 김창훈, 김진수, 이승진, 강웅산)
4	한국교회	정일웅, 박용규, 이상규
5	바울	권연경, 이한수, 문병구, 한천설, 이찬석, 최갑중, 김경진
6	요한복음	김문현, 김상훈
7	마가복음	박노식, 신현우, 심상범
8	주해	신득일, 이관직
9	예수그리스도, 믿음	임영호, 채영삼, 강용원

저자들이 소속한 신학교별 분석을 앞의 학술지 군집 분석과 비교하면, 세 군집의 저자 27명 중에서 21명이 장로교단 신학교 소속으로 나타나서, 세부 그룹이 생긴 1, 3 군집과 2군집은 학술지 분석의 개혁신학 군집에 속하는 저자들로 보인다. 특이한 점은 저자분석에 포함된 장신 소속 연구자가 모두 1, 2, 3군집에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장신 소속 연구자의 수가 다른 장로교단 연구자보다 적었지만, 3명 모두 개혁신학 군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술지 분석과 저자 분석에서 장로교단 신학자들이 개혁신학과 관련 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자 군집의 주제 해석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앞의 <표 8>에 제시했던 저자들의 전공과 저자 군집을 교차 비교하는 <표 11>을 작성하였다. 이를 보면 1, 2, 3군집에서 조직신학 전공자가 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약신학 5명, 역사신학 2명 등으로 나타났다. 신약신학 전공자가 17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1, 2, 3 군집에

속한 5명을 제외한 12명중에서 11명이 군집 5, 6, 7에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바울이 핵심 공유 색인어인 5군집에 6명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5, 6, 7 군집에 속한 연구자들은 신약신학의 연구자이며, 복음주의와 신약학에서 선교와 전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서 이 군집의 저자들은 복음주의 연구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앞의 <그림 9>의 패스파인더 네트워크에서 상단 부분에 위치한 군집 3, 5, 7, 8, 9의 저자들은 신약신학, 실천신학, 설교학, 조직신학 연구자들이 다수이다. 네트워크의 하단 부분에 위치한 군집 1, 2, 4, 6의 저자들은 조직신학, 역사신학, 선교신학 전공자들이 대부분이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개혁신학 관련 학술지 5종과 중립적인 학술지 2종, 복음주의 관련 학술지 2종

<표 11> 저자 군집과 전공 비교

번호	군집	공유 색인어	전 공							
			조직신학	역사신학	선교신학	구약신학	기독교 윤리	설교학	신약신학	실천신학
1-a	칼빈, 개혁신학, 성령		3	1						
1-b	칼빈		1	1	1			1		
2	개혁신학, 박형룡, 신학		4		1					
4	한국교회			2					1	
6	요한복음							2		
3-a	예수그리스도, 개혁신학		3			1	1	4		
3-b	설교		1			1		2	1	
5	바울		1					6		
7	마가복음							3		
8	주해					1			1	
9	예수그리스도, 믿음							1	1	1

등 9개의 학술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앞에서 설정한 연구질문 3가지를 중심으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술지 분석에서 개혁신학과 복음주의 군집이 구분되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평균연결 군집화 결과 2개의 개혁신학 학술지 군집과 2개의 복음주의 학술지 군집이 도출되었다. 군집 3과 4에 포함된 학술지 4종은 모두 '개혁신학'과 '칼빈'을 주요 색인어로 공유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개혁신학 관련 군집으로 판정하고 4종의 학술지를 집단A로 명명하였다. 나머지 두 군집에 속한 학술지 5종은 집단B로 명명하였다. 집단B 중에서 군집 1에 속한 학술지 2종은 모두 신약학 관련 학술지로서 '예수 그리스도', '바울', '요한복음'을 주요 색인어로 공유하고 있고, 군집 2에 속한 학술지 3종에서는 '하나님'이 공통 주요어이며, '선교'와 '바르트'는 그중 두 학술지에서 공통 주요어로 나타났다. 선교는 복음주의 진영에서 강조하며, 바르트는 개혁신학과는 다른 신학적 경향을 보이는 신학자이므로 이들을 복음주의 관련 군집으로 판정하였다.

둘째, 학술지 분석 결과 생성된 두 집단의 색인어 빈도와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개혁신학과 복음주의의 신학적 특색이 각각 명확히 확인되었다. 집단A의 색인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서는 '개혁신학'이 월등한 차이로 이웃중심성 1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상위 5위 이내에는 '칭의', '성화', '칼빈', '증보자' 등의 개혁신학 관련 색인어로 채워졌다. 반면에 집단B에서는 '개혁신학'이 최하위권인 61위로 나타나서 집단B가 개혁신학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오히려 집단A에서 중심성 순위 39위에

머물렀던 '복음주의'가 집단B에서는 8위로 높게 나타나서 집단B가 복음주의와 관련이 깊음을 보여준다. 한편 집단B의 이웃중심성 순위 상위권은 '칭의', '예수그리스도' 등 신학적 특색이 뚜렷하지 않은 색인어가 차지하였다. 이로써 개혁신학 학술지들은 개혁신학과 관련된 성격이 뚜렷하게 차별화되는 반면에, 복음주의 학술지들은 복음주의의 특정 주제에 집중하기 보다는 개혁신학을 거의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된 특징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혁신학 학술지들은 주제의 공통성이 강한 반면, 복음주의 학술지들은 상대적으로 주제의 공통성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저자분석 결과 3개의 군집을 이룬 개혁신학자들은 상대적으로 연구 주제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반면에, 6개의 군집을 이룬 복음주의 저자들은 공통 주제가 희박하여 분산된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신학자들의 3개 군집에는 주로 장로교단 신학교 소속의 조직신학 전공자들이 속하였다. 나머지 6개 군집의 신학자들은 '바울'과 '신약신학', '실천신학' 등의 복음주의와 관련된 색인어를 공유하고 있었으며, 장로교단 이외의 신학교에 소속된 신학자들이 많았고 일치되지 않은 다양한 분야 전공자가 포함되었다.

결론적으로 9종의 학술지를 개혁신학과 복음주의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저자 분석에서도 대체로 개혁신학 연구에 관심이 높은 신학자와 복음주의 연구에 관심이 높은 신학자들이 구분되었다. 공통 색인어와 저자 소속을 살펴본 결과 개혁신학은 뚜렷하게 결집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복음주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결집된 정도가 느슨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연구의 한계로는 구약학 관련 학술지를 포함시키지 못한 점과 보다 폭넓은 국내 신학 학술지의 색인어와 저자를 분석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연구 성과 중에서 단행본을 다루지 못한 점도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 단행

본을 출간하는 연구자도 논문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면서 관련된 주제의 단행본을 발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요 연구 주제는 대체로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김관준. 2015. 국외 독서 및 독서교육 연구동향 분석: 문헌정보학 분야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2(3): 69-97.
- 김혜연. 2017. 협동 글쓰기의 국내외 연구 동향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작문연구』, 34: 7-49.
- 유영준, 이재윤. 2016a. 칼빈 신학교 학술지에 대한 계량서지학적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7(4): 125-145.
- 유영준, 이재윤. 2016b. 웨스트민스터 신학학술지에 대한 계량서지학적 연구. 『신앙과 학문』, 21(3): 225-245.
- 이재윤, 김수정. 2016. 국내 재난 관련 연구 동향에 대한 계량정보학적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3(3): 103-124.
- 이재윤. 2006a. 계량서지적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중심성 척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3): 191-214.
- 이재윤. 2006b. 지적 구조 분석을 위한 새로운 클러스터링 기법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3(4): 215-231.
- 이재윤. 2013. tnet과 WNET의 가중 네트워크 중심성 지수 비교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0(4): 241-264.
- 이재윤. 2015. 가중 네트워크를 위한 일반화된 지역중심성 지수. 『정보관리학회지』, 32(2): 7-23.
- 임경근. 2017. 『개혁신앙 현대에 답하다』. 서울: SFC.
- 장경미. 2017.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 동향 연구. 『이중언어학』, 67: 259-283.
- 최상희. 2017. 독자 추천도서 정보를 이용한 작가 이미지 분석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4(4): 153-171.
- 최은진. 2016. 중국 매체지식인 연구의 지적 구조와 사회적 함의. 『중국학연구』, 77: 499-524.
- 한상화. 2000. 복음주의 개념정립을 위한 소고: 용어의 혼란에 대한 하나의 제안. 『신학과 선교』, 제4호: 335-366.
- 허순길. 2001. 개혁신앙고백교회로서의 개혁교회와 한국장로교회. 『신학지남』, 68(4): 19-30.

- Berkhof, Louis. 1996. *Systematic Theology*. [online]. [cited 2018.5.25].
〈https://www.monergism.com/thethreshold/sdg/berkhof/systematic_theology.html〉.
- Calvin, Joh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online]. [cited 2018.5.25].
〈<http://www.ntslibrary.com/PDF%20Books/Calvin%20Institutes%20of%20Christian%20Religion.pdf>〉.
- McGrath, A. 1995. *Evangelicalism and the Future of Christianity*. Westmont: IVP.
- Runia, K. 1984. *Evangelisch-reformatorisch-gereformed*. Apeldoorn: Willem de Zwijgerstichting
(임경근, 2017. 개혁신앙 현대에 답하다. 서울: SFC에서 재인용).
- Sproul, R. C. *What is Reformed Theology*. [online]. [cited 2018.5.26].
〈<https://www.scribd.com/document/79676840/What-Is-Reformed-Theology-Study-Guide>〉.
- Stone, Jon R. 1999. *On the Boundaries of American Evangelicalism: The Postwar Evangelical Coali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 Warfield, B. B. 1970. "A Brief and Untechnical Statement of the Reformed Faith." Selected Shorter Writings of Benjamin B. Warfield v. 1. John E. Meeter, ed. [online]. [cited 2018.5.25]. 〈https://students.wts.edu/lifelong/what_is_reformed_theology.html〉.
- Yoo, Y. J., J. Y. Lee, and S. H. Choi. 2013. "Intellectual Structure of Korean Theology 2000-2008: Presbyterian Theological Journals."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39(3): 307-318.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i, Eun-Jin. 2016. "The Intellectual Structure and Social Implications of the Chinese Media Intellectuals Research." *The Journal of Chinese Studies*, 77: 499-524.
- Choi, Sanghee. 2017. "Analysis of Author Image based on Book Recommendation from Read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4(4): 153-171.
- Han, Sang Wha. 2000. "Establishing the concept of evangelicalism: a suggestion for confusion of terms." *Theology and Mission*, 4: 335-366.
- Hur, Soon Gil. 2001. "The reformed church and Korean Presbyterian Church as a church confessing the reformed faith." *Presbyterian Theological Quarterly*, 68(4): 19-30.
- Jang, Kyungmi. 2017. "Network Analysis on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Korean Pronunciation Education Research Trends." *Bilingual Research*, 67: 259-283.
- Kim, Hye Youn. 2017. "Research Trends in Collaborative Writing: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the Korean Writing Association*, 34: 7-49.

- Kim, Pan-Jun. 2015.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Reading and Reading Instruction in Overseas: Focused o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2(3): 69-97.
- Lee, Jae Yun and Soojung Kim, 2016. "A Bibliometric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Disaster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3(3): 103-124.
- Lee, Jae Yun. 2006a. "Centrality Measures for Bibliometric Network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3): 191-214.
- Lee, Jae Yun. 2006b. "A novel clustering method for examining and analyzing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a scholarly fiel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3(4): 215-231.
- Lee, Jae Yun. 2013. "A Comparison Study on the Weighted Network Centrality Measures of tnet and WNE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0(4): 241-264.
- Lee, Jae Yun. 2015. "A Generalized Measure for Local Centralities in Weighted Network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2(2): 7-23.
- Lim, Kyung Geun. 2017. *The reformed faith answers to modern times*. Seoul: SFC.
- Yoo, Yeong Jun and Jae Yun Lee. 2016a. "A Bibliographic Study on the Calvin Theological Journal."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7(4): 125-145.
- Yoo, Yeong Jun and Jae Yun Lee. 2016b. "A Bibliometric Study on the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Faith & Scholarship*, 21(3): 225-245.

